

■ 새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

“경제계 화합·협력 도모”



최준탄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내수와 수출부진, 주력산업 침체, 정태금지법 시행, 정치 불안 등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대형유통업체 구매상담회, 수출 활성화 토론회, 정태금지법 대응방안 설명회, 공공구매 순회 간담회 등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고, 강원 경제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도내 경제단체 통합 기구인 강원경제단체연합회를 출범했습니다. 2017년은 전환기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내 경제 주체 간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해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산업 전문인력 양성”



한중로 강원장조경제혁신센터장

강원장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개소 이후 창업 및 판로 확보 여건이 열악한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힘썼다면 3년 차부터는 발굴된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정 확대 운영으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 전문가 및 문화·예술 멘토를 활용해 강원도 고유의 자원을 이용한 창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강원도민의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청년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건설업 성장동력 발굴”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새로운 희망을 품은 2017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정진한 경영인 여러분과 일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린 건설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새해에는 우리 건설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건설산업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기반공사의 마무리로 일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는 데 여러 기관과도 협력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금융자금·도민 행복 보증”



이남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올해는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 공급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수 부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국내성장률이 2%대로 전망되고, 금융 당국의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재단은 2만1,000건, 4,000억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 및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해 취약계층에 대한 협약보증 확대 운영 등 서비스 혁신에 힘쓰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 한 해 강원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행복을 보증하는 금융과 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설업 성장동력 발굴”

##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



새로운 희망을 품은 2017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일에 정진한 경영인 여러분과 일선 현장에서 구슬땀

을 흘린 건설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새해에는 우리 건설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건설산업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기반공사의 마무리로 일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는 데 여러 기관과도 협력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 도내 곳곳 1446억 규모 공사 수주전 돌입

접경지 병영시설·하수관로 정비 등  
국방부·공공기관 예산 조기집행

강원도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새해 벽두부터 1446억원 규모의 공사가 쏟아지면서 본격적인 수주전이 시작됐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4건의 병영시설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민간투자시설사업

중도내 사업장은 △양구·인제 병영시설(810억8000만원) △철원·연천병영시설(316억9000만원) △원주·홍천 병영시설(318억6000만원) 등 3건이 포함됐다.

사업비가 가장 큰 양구·인제 병영시설 사업은 태영건설과 고려개발, 계룡건설 사업 등이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철원 병영시설은 신동아건설이, 원주·홍천 병영시설은 한동건설 등이 적정공사비와

수익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오는 12일까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뒤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한다.

조달청도 새해 첫주 강릉시 하수관로 정비사업(116억원)을 포함, 도내 139억원 규모의 시설공사 입찰을 진행한다. 이 밖에 강원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공공기관들도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잇따라 공사를 발주한다. 안은복

## “올림픽 건설특수 대체산업 발굴 시급”

건설협 “혁신도시 등 참여 방안 필요”

11조원에 달하는 평창동계올림픽 특수가 올해 마무리되면서 대체산업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강원도와 도 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동계올림픽 시설 예산 규모는 11조 3771억원이다. 철도나 국도, 진입도로 등

교통망 구축 예산이 9조 4671억원으로 가장 많다. 경기장에는 8463억원, 미디어촌과 국제방송센터 등 지원시설의 건설에는 1조 637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올림픽 예산 지원은 올해 종료된다. 경기장은 올해 모두 완공되고 진입도로와 철도·고속도로도 연말까지 모두 완공되기 때문이다. 11조원이 넘는 동계올림픽 특수완

료로 도내 건설업계 경영난이 우려된다. 레미콘 업계도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다. 춘천~속초 고속철도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지만 지역업체 참여 폭은 제한적이다.

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 동계특수가 종료되면서 대체 산업 발굴이 시급하다”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는 물론 원주 혁신도시 등 민간발주 대형공사에도 업체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